

##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해외에서 더 인정

### 해외에서 더 인정 받는 기업

럭스텍(대표 윤해관, www.luxtech.co.kr)은 광통신 핵심 부품 소자인 Zirconia Ferrule 생산업체로 국내에서 보다는 해외에서 더 지명도가 높다. 기초 소자인 페룰은 물론, 뛰어난 연마 기술을 바탕으로 Patch Cord와 Attenuator 역시 일본 제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전량 수출만 하던 품목이었다. 작년도 실적을 보면 전체 매출에서도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주력형 기업이다.

광통신부품 페룰은 전자통신방법이 종래의 동선케이블에서 광통신으로 변경되어감에 따라, 광케이블의 커넥터를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 초정밀가공기술이 요구되는 첨단사업이다.

또한 세라믹 소재기술과 정밀도 0.5 $\mu$ m이내의 초정밀 가공부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제조설비는 기술집약형 설비로 정밀공작기계 제작능력과 공정자동화 기술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국산화

1996~97년부터 사전 준비작업 및 기술 개발을 통해 착실히 준비를 쌓아온 럭스텍은 1998년 4월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 1999년 공장준공과 함께 후반기부터 제품을 출시 하였다. 사업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기술도입 및 설비 구입이 많았으나, 그동안의 많은 시행착오와 기술개발 노력에 힘입어, 기계설비의 국산화 및 공정의 규격화를 이룩하고, 올해에 이르러서는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생산성 향



▲럭스텍 공장전경

상을 통해 기술적 독립을 이루었다.

사업초기의 SC 타입의 페룰을 시작으로 현재 LC, MU 타입의 페룰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는 업계의 요구에 따라 Transceiver용 중요 접속 소자인 Fiber Stub, 특수 Sleeve를 개발, 미국, 일본 및 국내 우수업체들에 납품,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 받고 있다.

지르코니아 페룰의 경우 럭스텍 자체적으로 측정된 동심도 1.0 마이크로미터의 제품을 일본의 NTT-AT사에 측정 의뢰한 결과 0.6 마이크로로 평가 받을 정도로 자사의 품질관리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뛰어난 연마기술을 바탕으로 Patch Cord 및 Attenuator의 경우 유수의 일본업체의 품질과 동등 혹은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아, 가격도 국내거래가격의 두배를 받을 만큼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광부품 측정에 사용하는 Master Cord까지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앞으로 펼쳐질 전광시스템과 FTTD(Fiber To The Desk)시대에 대비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양산시스템의 완비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으며, 광통신부품 바이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서 광통신부품의 One-Stop Shopping 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해외판매망을 통한 판매상품의 다양화

기존의 다양한 자사의 해외판매망을 통해 자사 제품인 Ferrule, Attenuator 이외에 국내 및 해외 업체들의 다양한 광통신 부품을 Trading 하고 있다. Ferrule, Sleeve의 경우 렉스텍이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다양한 아웃소싱 루트를 통해 일반 무역업체보다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 및 해외 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밖에 Adaptor, Connector Kit, Coupler, WDM 등도 국내의 거래를 적극 도모하고 있으며, 실적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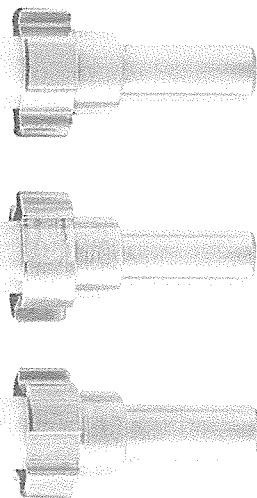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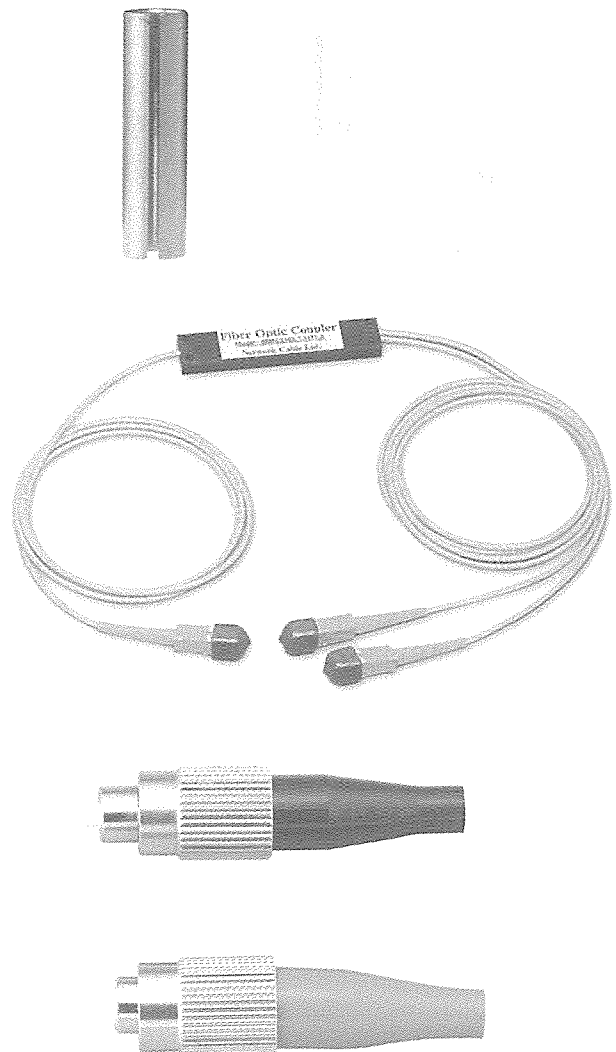
페룰은 광섬유를 연결해 주는 광커넥터의 필수적인 부품으로 길이 1cm, 직경 2mm의 세라믹소재에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오차범위 2000분의 1mm 이내의 정밀가공 기술력이 필요하다.

현재 일본이 90% 이상 독점 생산하고 있다. 특히 페룰은 멀티미디어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확대에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거의 수입에 의존해 시장 또한 매우 밝다. 시장 수요는 미국과 유럽에

약 70%가 몰려 있으나 우리나라와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차츰 늘어나고 있다.

월 50만개씩 양산하고 있는 렉스텍은 대규모 설비증설보다는 생산가동을 확대와 품질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장기적인 고객 확보에 나섰다.

이를 통해 북미,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중심의 수요처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해외투자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70%이상을 수출하고 있는 페룰

▲렉스텍이 생산하는 제품들